

'깊이'와 '재미' 두루 갖춘 테마 소설들

난해한 서양철학·종교·역사를 문학으로 안내

최근 인문학이 상아탑이라는 권위와 지족의 공간에서 세속의 거리로 걸어 나오고 있다. 철학·종교·신화와 문학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리의 공산화'를 실천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신비화된 지식의 틀을 깨고 진리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지향한다. 소설이라는 서사장르의 날렵한 형식에 인문학의 심오한 진리내용을 접합시키려는 것이다.

서사구조로 풀어쓴 철학

우선 난해성과 심오성으로 봉인된 서양철학의 상자를 소설이라는 문학적 열쇠로 열리는 철학소설들이 여럿 나와 있어 주목을 끈다. 《소피의 세계(전3권)》·《세실리의 세계》(현암사),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새물결), 《판타 레이》(한길사) 등이 그것.

노르웨이의 작가 요슈타인 가이더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피의 세계》는 고대 그리스철학부터 현대 실존주의철학까지 3000년에 걸친 철학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풀어쓴 서양철학 입문서다. 14세의 사춘기 소녀 소피가 어느날 "너는 누구니?"라는 의문의 편지를 받는다. 소피는 정체불명의 철학선생 알베르트 크눅스로부터 철학사강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피의 세계'가 실은 노르웨이 평화유지군의 알베르트 크나 소령이 딸 힐데의 생일선물로 쓴 창작소설 속의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소설구조 자체가 자명성과 확실성에 대한 철학적 의문인 이 책은 "훌륭한 철학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피의 세계》의 후속작인 《세실리의 세계》는 보편적인 우주의 섭리를 아름다운 문체로 풀어낸다. 크리스마스 이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세실리에게 피안의 세계에서 천사 아리엘이 찾아온다. 호기심 많은 세실리는 아리엘과 지상의 비밀과 천상의 비밀에 관해 열띤 토론에 빠지면서, 점차 수수께끼 같은 우주생성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지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철학적 성찰을 담았다.

《소피의 세계》와 《세실리의 세계》가 동화

난해함과 심오함으로

봉인된 서양철학의 상자를

소설이라는 문학적 열쇠로

열리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끈다. 소설과 인문학의

장르를 합성한 인문학적

문학서들은 진지하면 지루하고,

재미있으면 경박해지기 쉬운

역설을 피하며 대중적

호소력을 성취하고 있다.

형식인 반면, 이종관 교수(춘천교대)가 쓴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는 추리물과 멜로물을 뒤섞은 통속소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스파이가 된 철학자의 포스트모던한 경험을 통해 근대철학부터 포스트모던 철학까지 서구 철학사의 비밀을 정탐한다.

주인공인 '그'는 대학강단에서 철학을 강의한다. 그러나 신세대들의 권태와 피로, 매음적 지식을 추구하는 친구와의 갈등,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버지가 당하는 사기 등으로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철학의 핵심쟁점, 즉 니체의 권력의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등을 경쾌한 문체로 풀어 나간다.

이러한 철학소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서양철학사를 관통하는 주제들을 엮어간다면,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가 쓴 《판타 레이》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판타 레이'(만물은 흐른다)를 화두로 삼아 고대와 현대의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펼쳐간다.

데 크레센초가 꿈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나 사랑과 자유, 우주와 시간, 매음굴과 자동차, 베를루스코니와 지중해 클럽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상대담 구조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도 '우연'이 던져버린 쓰레기 더미다", "죽음은 우리가 깨어서 보는 것이고, 꿈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보는 것이다"처럼 아포리즘적인 통찰과 상상력이 넘친다.

신화와 종교는 각 민족과 개인에 따라 조



금씩 양상을 달리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반영이다. 《테오의 여행》(동문선)과 《소설로 읽는 그리스-로마 신화》(술)는 종교와 신화의 이름을 빌린 인간들의 욕망과 격정의 이야기다.

문명의 원천 탐색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카트린 클레망의 《테오의 여행》은 세계의 종교와 문명을 찾아 떠나는 여로형 소설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린 열네살 소년 테오(그리스어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는 마틸드 고모와 함께 예루살렘, 로마, 이스탄불, 인도, 교토 등 종교성지를 여행하면서 많은 친구와 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저자는 이 여행을 통해 아량과 관용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

서양문명의 상상력은 그리스-로마의 신화에서 발원한다. 그러나 인간들만큼이나 복잡한 계보와 역사를 갖는 이 신화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의 작가 드니 랭둥이 쓴 《소설로 읽는 그리스-로마신화》는 누구나 쉽게 신화를 읽을 수 있는 신화입문서로서 신들에 투영된 인간의 이야기다.

"3천여 년 전의 땅 위에는 수많은 신들이 모여 살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일에 끼여들었다"로 시작하는 이 책은 신들이 결코 늙거나 죽지 않으며, 원할 때면 언제나 모습을 바꾸어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지만, 거만하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질

투도 하고, 복수와 용서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보통 인간과 닮았다는 관점으로 신화를 접근한다. 오디세우스가 아내의 구혼자들을 물리치는 결투에서 음유시인 호메로스를 살려보낸다는 이야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마릴린 먼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그레타 가르보를 비교하는 등 재치와 익살이 가득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문적 소설들은 이어진다. 동문선에서는 《소설로 읽는 세계사》·《소설로 읽는 정신분석》·《진리를 찾아서-소설로 읽는 과학의 역사》·《소설로 읽는 수학의 역사》 등 <소설로 읽는 인문학>·《소설로 읽는 과학》 시리즈 5종 30여권을 발간한다. 한길사에서도 <데 크레센초의 철학카페>라는 이름으로 《헬레네, 헬레네, 나의 사랑》·《그리스의 현자들》·《질서와 무질서》·《네수노》 등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소설과 인문학의 장르를 합성한 인문학적 문학서들은 진지하면 지루해지기 쉽고 재미있으면 경박해지기 쉬운 역설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학문적인 깊이와 대중적 호소력을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제와 대상들이 서구문명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인문학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깊이와 재미를 두루 갖춘 '소설로 읽는 퇴계철학', '소설로 읽는 단군신화', '소설로 읽는 실학' 등을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은 아직도 멀었는가.

— 박천홍 기자